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Reuters: 5월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 하락...침체 신호 저
- WSJ: 필라 비즈니스 활동 지수, 5월과 6월 계속 저조...마이너스 4.0
- YahooFinance: 5월 주택 판매 약간 상승...높은 모기지가 여전히 발목 잡아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달러 상승 완화...연준 이사 "7월 금리 인하 지지"로
- Investopedia: 미 가구 순자산, 2년 만에 첫 감소
- Bloomberg: 모건 스탠리, "지정학적 매도세 빨리 완화"
- WSJ: 스테이블 코인, 메인 스트리트 은행에 개방

[미 세제 개혁안]

- Bloomberg: 트럼프 세제 개혁안 상원 표결 앞두고지만 지연 가능성도
- Bloomberg: 연방 친환경 에너지 폐지, 공화당 지역구에 타격

[중동 위기]

- CNBC: 유조선들, 호르무즈 해협 운항에 신중

[글로벌 경제]

- WSJ: 관세 및 중동 전쟁에 불구, 글로벌 기업 활동 회복세 유지

[인공지능]

- WSJ: 주커버그, 고액 연봉 제안하며 AI 인재 채용 주도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알리바바, 핵심 전자상거래 사업부에 음식 배달 및 온라인 여행 통합
- CNNBUSINESS: 크로거, 내년 상반기까지 60여 개 지점 닫는다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Reuters: US leading indicators slip in May, triggering recession signal, Conference Board says
5월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 하락...침체 신호 저

- 5월 미 향후 경제 활동 지표가 6개월 동안 연속 하락하고 있어 침체 신호를 앞당기고 있다. 이같은 지표는 소비자의 비관적인 입장, 제조품의 신규 주문 약세,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, 건물 신축 허가 건수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.
- 컨퍼런스 보드의 5월 선행지수는 0.1% 하락한 99.0을 기록했는데 전원은 1.4% 하락한 수치를 보여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0년 봄 이래 가장 높은 하락세를 기록했다.
- 트럼프의 관세 조치 임시 유예로 5월 증시가 반등해 선행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이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상쇄됐다.

- 컨퍼런스 보드의 경지 사이클 지수 매니저인 Justyna Zabinska-La Monica 는 4월에 선행 지수가 크게 낮아진 후에 5월에도 하락해 선행지수의 6개월 성장은 더욱 악화되어 침체 신호를 키웠다고 말했다. 즉, 컨퍼런스는 침체를 예상하지 않지만 올해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어 실질 GDP가 1.6%를 지지하고 관세로 인해 내년에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.

Reuters 기사

WSJ: Philadelphia Area Factory Activity Remains Subdued 필라 비즈니스 활동 지수, 5월과 6월 계속 저조...마이너스 4.0

- 필라 연준의 월간 설문 결과에 따르면 6월 필라 지역 비즈니스 활동 지수가 5월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로 나타났다. 낮은 수치를 계속 보이고 있다.
- 신규 주문과 출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고용 감소 상황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다.
- 가격 지수는 다소 완화됐지만 기업들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보고했다. 향후 6개월간의 성장 기대감은 감소했다.

WSJ 기사

YahooFinance: Home sales rose slightly in May, but high mortgage rates are still hurting the market

5월 주택 판매 약간 상승...높은 모기지가 여전히 발목 잡아

- 5월 주택 판매가 약간 상승했다. 높은 모기지율과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움츠려온 주택시장이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다.
- 전국부동산협회의 오늘 월요일 발표에 따르면 기존 주택 판매가 4월과 비교해 0.8% 상승해 시즌 조정치로 연율 4백만 3만 채를 기록했다. 전문가들은 당최 1.3%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었다. 작년과 비교해서는 판매가 0.7% 하락했다.

YahooFinance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Dollar Surges as Mideast Escalation Spurs Inflation Risk 달러 상승 완화...연준 이사 "7월 금리 인하 지지"로

- 달러가 오늘 월요일 급등세를 보이다 상승분을 반납했다. 연준 이사인 Bowman 이 빠르면 올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후 상승세가 완화되었다.
- 오늘 아침 달러가 거의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상승세를 보였었다.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으로 오일가 상승과 인플레이 우려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다.
- 블룸버그 달러 현물 인덱스가 5월 이후 최고치였던 0.6%까지 상승세를 보였다. 엔화와 비교해서는 1% 이상 상승했었다.
- 지난주에는 3년래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중동의 갈등 악화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2월 하순 이래 주간 단위로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
다.

Bloomberg 기사

Investopedia: Household Wealth Fell for The First Time In 2 Years. Here's Why It Will Bounce Back**미 가구 순자산, 2년 만에 첫 감소**

- 관세 위협이 증시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미 가구의 순자산은 올해 1분기에 감소했다.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.
- 지난주 연준에 따르면 미 가구들의 순자산은 올해 1분기의 경우 1조6천억 달러가 줄어든 1백69조 3천억 달러로 나타났다. 미 가구의 순자산은 작년 4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다.
- 물론 관세 조치가 후퇴하면서 2분기에 증시는 반등했다.
- 증시 성장은 부유층 가구의 순자산을 성장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주식이 없는 중저소득층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. 현재 미 가구의 60%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.

Investopedia 기사

Bloomberg: Morgan Stanley's Wilson Says Geopolitical Selloffs Fade Fast**모건 스탠리, “지정학적 매도세 빨리 완화”**

-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. 브렌트유가 5.7%까지 가격이 상승했으나 상승분의 대부분을 반납했다.
- 모건 스탠리 전략가들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매도세는 전반적으로 단기적 완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오일 가격이 변동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.
-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혼란시켜 오일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다. 그러나 오일 가격이 비즈니스 사이클에 위협이 될 정도가 되려면 배럴당 120불까지 상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Bloomberg 기사

WSJ: Stablecoin World Opens Up to Main Street Banks**스테이블 코인, 메인 스트리트 은행에 개방**

- 금융 기술 기업인 Fiserv는 대략 3천 개의 지역 및 커뮤니티 기업 고객들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과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.
- 해당 플랫폼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과 호환하게 되며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금융과 연계시키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- Fiserv의 스테이블 코인인 FIUSD는 사기 방지 통제 서비스를 갖고 있으며 대형 은행들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WSJ 기사

[미 세제 개혁안]

Bloomberg: Senate Readies Tax Bill for Vote as Holdouts Threaten Delay
트럼프 세제 개혁안 상원 표결 앞두고 지연 가능성도

- 이란에 대한 미국의 폭격으로 미국의 중동전쟁에 대한 개입 리스크가 나도는 가운데 트럼프의 세제 개혁법안이 이번 주 상원에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까워지고 있다.
- 그러나 트럼프의 4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될 정도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.
- 상원에서 재정 보수파 의원들은 전체 법안의 재정 비용을 줄이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지역 주민용 메디케이드 비용 삭감과 그들 주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단계적 폐지에 우려하고 있다.
- 일정대로 처리된다면 상원은 이번 주말에 그리고 하원의 수정안에 대해 다음 주에 표결해 7월 4일까지는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US Clean-Energy Project Cancellations Hit GOP Districts Hardest
연방 친환경 에너지 폐지, 공화당 지역구에 타격

- 연방 세제 법안에 포함된 친환경 에너지 세금 공제 폐지와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공화당 지역구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.
- 1백55억 불에 해당하는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가 지난 1월 이래 취소되고 지연되고 있다. 이중에 공화당 지역구에 투자하는 90억 불 상당의 친환경 프로젝트로 1만 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.
- 결국 친환경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.

Bloomberg 기사

[중동 위기]

CNBC: Tankers showing caution around Strait of Hormuz after U.S. attack on Iran nuclear sites
유조선들, 호르무즈 해협 운항에 신중

- 유조선들이 봉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항해를 바꾸고 있다.
- 유럽 해상무역 관리 기관인 UKMTO에 따르면 이 해협에서는 광범위한 전자파 간섭과 GPS 신호의 방해 및 위치 정보 위조 변경 신호 등으로 선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.

- 이는 미국이 지난 토요일 이란의 핵농축 시설 세 군데를 포격하고 이란이 해협 봉쇄를 위협하면서 발생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글로벌 경제]

WSJ: Global Business Remains Resilient in Face of Tariffs, Middle East War**관세 및 중동 전쟁에 불구, 글로벌 기업 활동 회복세 유지**

- 불확실한 글로벌 무역 정책과 심화되는 중동 갈등에도 불구하고, 유럽과 아시아의 기업 활동이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.
-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동을 측정하는 유로존 종합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기업 활동이 꾸준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. 일본, 호주, 인도의 지수 또한 모두 상승하며 경제 전반의 가속화를 보여줬다.
- 독일 제조업은 신규 주문이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, 영국 역시 4월 이후 경기 활동이 활발해졌다.
- 그러나, 중동 갈등 심화에 따라 이러한 흐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. 베렌버그 증권 경제학자 Holger Schmieding은 “석유 및 가스 수출이 심각하게 방해받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”고 지적했다.

WSJ 기사

[인공지능]

WSJ: Zuckerberg Leads AI Recruitment Blitz Armed With \$100 Million Pay Packages**주커버그, 고액 연봉 제시하며 AI 인재 적극 채용**

- 마크 주커버그는 메타가 새로 구축하는 “Superintelligence Lab”을 위해 AI 기술을 가진 인재 채용에 적극적이다.
- 그는 수백 명의 연구원, 과학자, 엔지니어 등에게 직접 연락하며, 일부 최상위 인재에게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. 또한, 채용 대상자들에게 자금이나 컴퓨팅 자원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지원을 약속했다.
- 이러한 채용 공세에도 불구하고, 일부 잠재 채용 대상자들은 메타의 인공지능 방향성과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메타 합류를 주저하고 있다.
- Open AI CEO Sam Altman은 AI에 관한 주커버그 개인의 접근과 막대한 자금을 결합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Alibaba Folds Food Delivery, Online Travel Services Into Core E-Commerce Unit**알리바바, 핵심 전자상거래 사업부에 음식 배달 및 온라인 여행 통합**

- 중국의 주문형 배달 및 온라인 여행 부문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, 알리바바는 식품 배달 사업체 Ele.me와 온라인 여행사 Fliggy가 회사의 전자상거래 부문에 통합될 것이라 발표했다.
- 최근 알리바바는 4월 쇼핑 플랫폼에 빠른 배송 기능을 추가한 후 2개월 만에 일일 주문량이 6,000만 건을 돌파하며 경쟁력을 갖추었다.
- 알리바바 CEO Eddie Wu Yongming은 Ele.me와 Fliggy는 독립적인 기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전자상거래 부문의 전략에 긴밀히 맞출 것이라 밝혔다.

WSJ 기사

CNNBusiness: Kroger is closing around 60 stores in the next year and a half

크로거, 내년 상반기까지 60여 개 지점 닫는다

- 크로거가 향후 18개월 내에 전체 지점의 5%인 60여 개 지점을 폐쇄할 예정이다. 이는 경쟁사 Alberstons와의 합병이 무산된 지 몇 달 만에 나왔으며, 현재도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.
- 크로거는 폐쇄로 인해 약 1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겠지만, 폐쇄 대상 매장 직원들을 인근 매장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히고 절감 비용은 고객 경험 향상에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다.
- 한편, 크로거는 소비자들이 외식 대신 집에서 식사하는 추세를 따르기 시작하며 수혜를 보고 있다. 또한 2,000여 개 제품의 가격을 내리고, 자체 브랜드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매출 증가에 기여해왔다. 이에 따라 크로거는 연간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.
- 그러나, 크로거 임시 CEO Ron Sargent는 “모든 매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지속 가능한 실적을 내는 것은 아니다”고 설명하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내비쳤다.

CNNBusiness 기사

[보고서]

[美 이란 공격] 호르무즈 봉쇄 위기...글로벌 원유운송 마비할 수 있는 '요충지'

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% 운송 韓 수입 중동산 원유 99% 호르무즈 통과
 피습 반발해 이란 의회 해협봉쇄 의결 국가안보위의 최종 결정만 남아
 봉쇄시 유가 최대 130 달러 전망 美부통령 "봉쇄 이란 입장서 자살행위"

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이자 '병목 지점'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것이라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.

호르무즈 해협은 길이 약 160 km에 좁은 곳은 폭이 약 50 km 정도에 그치지만 페르시아만을 대양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해로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막대하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